

강진군, 인구소멸 대응 '신규마을' 조성 본격화

다음달 착공 남호지구, 100% 분양...16세대 중 14세대 도시민 입주 150 세대 임천지구, 내년 9월 착공 동시 분양...인구 유입 견인차 기대

강진군의 인구소멸위기 대응 전략 주거지원사업 중 하나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달 안에 남호지구 신규마을을 조성 위한 지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규마을 조성 지원사업은 15호 이상 전원마을을 만드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의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강진군과 부동산 개발 업체인 전노봉은 지난해 12월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전노봉은 이후 9개월 동안 토공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 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공작업이 완료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된다. 2025년까지 1만5541㎡(4709평) 부지에 전원주택 16세대, 마을회관 1곳의 신규마을이 조성된다. 강진군 대구면에 인구 유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해당 부지는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를 갖추고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 조건으로 전원주택 16세대 모두 100% 사전 분양 완료됐다.

이 가운데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 받아 입주할 예정이다. 인구 유입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강진군이 직접 시행하는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도 순항 중이다. 임천지구는 전원주택 150세대와 진입도로, 상·하수도, 관계인구센터, 공동체형 텃밭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 유치와 동시에 은퇴 후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향유 등의 유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강진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강진군 강진군은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올해 진입도로 개설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내년 9월 설계가 완료되면 분양과 동시에 기반 시설이 조성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성공 모델을 만들 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과 부동산 개발 업체 전노봉은 지난 5일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강진군 제공>

담양 농어촌버스, 일반인 요금 100~120원 인상

4년만의 요금 조정...다음달부터 군내버스는 현행 요금 유지 광주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도

담양 지역 농어촌버스 일반인 기본요금이 10월 부터 100~120원 인상된다.

4년 여 만의 요금 조정으로, 현재 적용 중인 요금은 2020년 9월1일부터 유지되고 있다.

전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도내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을 의결하고 8월부터 시행토 록 했으나, 담양군은 운수업체(동광담양고속)와 의 협의를 거쳐 도가 제시한 최소 인상폭 (13.3%)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관내는 일 반인 1500원에서 1600원, 중·고생은 1200원에서 1280원, 초등생은 750원에서 800원으로 6.7% 인 상된다.

다만 군 자체 정적인 단일요금제는 그대로 시행 될 예정이어서 관내 일반인 1000원, 청소년 100원 의 버스요금도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담양 농어촌버스.

반면 관외는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다. 1800원에서 1920원으로 10km 이내 기본요금에 적 용되고 10km 초과 시(군계 외) 현행 km당 131.82 원에서 138.62원으로, 고속도로 구간(13.5km)은 74.31원에서 78.03원으로 6.95% 인상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요금 인상으로 군민에게 부 담을 드리 죄송하다"며 "이번 요금 조정이 운수업 체 경영난 해소와 저우 개선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네이버 검색'만 하면 나주 버스 운행정보 한눈에

시, 모바일 페이지 개통 앱 설치·누리집 접속 과정 생략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만으 로 나주시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버스 승객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9월 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을 활용한 '나주버 스 모바일 페이지'를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19 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앱(App)을 설치 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하지 않고 네이버 검색창에 '나주버스'만 입력하면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네이버 검색 페이지에선 노선, 정류소, 출발·도 착지, 주변 정류소, 버스 시간표 정보 검색 서비스 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정류소 검색에서 '나주시청'을 검색 하면 나주시청을 경유하는 모든 버스의 실시간(분 단위) 운행 정보와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출발·도착지의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하 면 운행 버스와 운행 시간, 카드 요금까지 간편하



실시간 나주시역 버스 운행 정보를 알 수 있는 '네이버 검색 사이트'가 개통됐다. 캡처 화면.

<나주시 제공>

게 알 수 있다.

나주시는 모바일 페이지 개설에 따라 기존에 운 영했던 나주버스 전용 앱 서비스를 10월1일부터 종료할 예정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

민들도 손쉽게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검색 한 번 에 알 수 있도록 모바일 페이지를 개설했다"며 "앞 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서비 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새 문화 명소 '백운동전시관'

다음달 4일 완공 기념식·일반 공개...상설 전시실·티 가든 등 갖춰

강진의 새로운 문화 시설인 강진백운동전시관 이 완공됐다.

전시관은 다음 달 4일 기념식과 함께 일반인에 게 공개된다.

월출산 아래 자리 잡은 백운동전시관은 주변 경 관을 해치지 않는 지하식 구조로 명승인 백운동 원 림과 어우러진 양식으로 건축됐다.

이 지역은 원주이씨 문종이 대를 이어 살고 있는 터전으로 군은 2017년부터 원주이씨 문종과 함께 강진의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했

다.

전시관은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연면적 1507㎡, 건축면적 920㎡이다.

주요 시설로는 상설전시실, 티 가든, 뮤지엄숍, 체험학습실, 수장고 등 국립박물관 못지않은 규모 와 시설을 자랑한다.

전시관 지상 1층은 티 가든을 중심으로 체험학 습실, 뮤지엄숍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관이 가장 좋은 장소이다.

상부를 포함한 주변이 대부분 유리로 월출산과

백운동원림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으며 상쾌한 개방감으로 인기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전시실은 현대 작가의 설치 미술품과 함께 보물급 유산인 동강공 이의경 초상화 진본과 함께 이의경이 사도세자에게 하사받은 시가 전시 돼 있다.

상설전시실은 백운동원림 흥보 영상 '백운동 시 간의 길을 걷다' 코너로 회의실과 영상실을 겸해 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갖췄다.

상설전시실 본관에서는 100여점의 원주이씨 소장 유물도 만날 수 있고, 백운동집을 현대적으 로 재해석한 작품인 '디지털 강진의 빛'은 아름다 운 영상으로 압도적인 몰입감과 영상미를 선사한 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벼멸구 긴급방제 4억5천만원 투입

30일까지 집중 방제

함평군이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급격히 확산된 벼멸구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방제비 4억 5000만원을 투입,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함평군의 벼 재배면적 6567ha 중 133ha 이상에서 벼멸구 피해 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면적 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벼 수확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 중 방제 기간으로 설정했다.

군은 각 마을에 엽프 방송을 통해 적기 방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농가들에 벼 수확 15일

전까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방제를 진행 하도록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긴급방제비는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 산업부서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제 작업은 신속한 대응 을 위해 전문 방제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지 원 금액은 ha당 7만5000원으로 벼멸구 피해 지역 전 필지를 대상으로 방제 대행 비용이 지원된다.

군은 이번 긴급방제를 통해 벼 수확기 피해를 최 소화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벼멸구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농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민들 의 생활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 손불·신광면, 농업용수 걱정 끝

복암제·덕천제 보강 공사...재해 예방·농업용수 공급 원활



함평군이 최근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마친 손불면 복암제(왼쪽)와 신광면 덕천제.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자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호우 시 위험이 우려되는 저수지 2곳에 대한 정비사업 을 완료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재해 위험이 있던 손불면 복암제와 신광면 덕천제 2곳의 정비사업을 최근 마쳤다.

복암제는 1945년에 조성한 총 저수량 14만 9000t 규모의 저수지다.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의 위험 저수지로 판정됐다.

덕천제 역시 1962년에 준공된 총 저수량 5000t 의 저수지이며 같은 해 D등급 판정을 받았다.

함평군은 두 저수지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

하고 지난해 신규 정비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승 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8월까지 총 사업 비 28억원(국비 14억원·지방비 14억원)을 들여 취수시설 교체, 제체 보강, 물넘이 및 방수로 보수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수시로 대형화되고 있는 지 역의 자연재난에 대비한 함평군의 선제적인 재해 예방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정비사 업을 통해 자연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 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폐기되는 수목, 도시숲 조성에 재활용

화순군, 나무은행 사업 추진...대형목·희귀목 공익사업에 투입

화순군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버려지고 폐기 되는 수목을 공익적 사업에 재활용하여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에 쓸 수 있도록 나무은행 사업을 추 진한다.

나무은행 사업은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버려질 수목과 개인이 기증하는 수목 중 가치 있는 대형목 및 희귀목 등을 군에서 관리하는 나무은행 에 옮겨 심었다가 공익, 마을숲 조성 등 공익사업 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1년부터 화순읍 감도리 군유지 일원 등 2개소, 1만1250㎡에 배롱나무 등 18종, 870여 주 를 이식해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화순읍 현대오양병원 삼거리 주변에 원형교차로를 조성하며 폐기될 위기를 겪은 소나무 (37주)를 동면 광업소 주변 폐탄장 미세먼지 차단 숲(26주)과 도암면 운주사 실외정원 조성 사업 (11주) 등에 재활용해 사업예산 절감과 수목의 가 치를 높이는 등 녹지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두환 화순군 산림과장은 "앞으로도 개발 등으 로 인하여 폐기 처리하는 수목 중 가치가 있는 수 목은 가능한 폐기하지 않고 옮겨심기 하여 군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에 힘쓰고자 한다"라고 말했 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